

# 푸른신호등은

## 안전경영혁신활동의근간



### 1. 개요 \_ 한국남동발전(주)의 모

든 안전에 관한 활동과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안전보건경영 인프라넷」은 전 사업장내 설비 특성을 살려 자율안전경영 고유 모델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본사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종합적 안전경영 시스템이다.

여기서 한국남동발전(주)의 노하우 중 하나인 「푸른 신호등」이 있다.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행위 및 유해·위험 요소를 인프라넷에서 발굴·관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습관적 불안전한 행동을 수정하는 안전기법이다.

### 2. 푸른 신호등 업무 절차 \_ 전 직

원이 현장에서 유해위험개소 및 불안전행동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보건 정보”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Web 상에 등록한다. 품질안전팀에서는 조치 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여기까지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Web상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다.

이후 담당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시행되면 “노란색” 신호등이 켜지고, 유해위험개소의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파란색」 신호등이 켜짐으로써 종료된다.

### 3. 개선 및 성과 \_ 2003년 3월

에 처음 시행된 푸른신호등은 한국전력공사 시절부터 시행되어 온 안전지적서를 업그레이드 한 안전기법이나, 근로자들의 참여가 생명인 푸른신호등은 처음 시행당시 본 운동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참여도는 극히 미진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여수화력발전소 내에서는 197건의 잠재 위험이 발굴·등록되었고, 발굴된 모든 요소가 100% 조치 완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출범한 6개 발전회사 중 하나인 한국남동발전(주)는 2003년 분당복합화력에 이어 지난해 여수화력발전소를 두 번째의 안전경영대상 사업장을 탄생시켰다. 안전경영 1등 기업으로 인정받은 데에는 국내 최장기간 무재해 21배수 달성과 "안전보건경영 인트라넷"이 있었고, 그 속에 이곳의 노하우 "푸른신호등"이 있다.

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근로자 1인당 2건의 잠재위험 요소 발굴로 푸른신호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Key가 있었다.

본 운동의 장점은 전국 사업장의 정보 공유와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여기에 경영자(김갑중 처장)의 수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푸른신호등의 활성화에 근원적 에너지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근로자의 안전마인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떤 선진안전기법보다 높은 것을 볼 때 경영자의 푸른신호등 참여가 곧 으뜸 안전활동 푸른신호등을 만들었다.

#### 4. 맺음말 \_ 우리나라 무재해운동은

1979년 9월에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이 공포되면서 사업장 저변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때부터 여수화력발전소는 무재해의 기록을 유지하면서 2월이면 무재해 22배를 달성한다.

국내 최장기간 공식적인 무재해기록이다. 그러나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무재해 기록을 합치면 무재해 25배수를 뛰어 넘는 기록이다.

이런 여러 정황이 평가되면서 전기·가스 수도사업 부분에서 안전경영 1등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전 분야에서 명실공히 안전경영 1등이 되기 위해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행보는 지난해 7월에 도입 시행하고 있는 BBPP(행동기반 성과 측정 프로세스)에서도 볼 수 있다. 사고의 발생원인인 근로자의 습관적 불안전행동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선진형 안전기법으로 전사적인 교육과 시범운영 및 본 운영으로 2005년에 개념 주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무계획에 CB(그룹별 목표)가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고객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정문을 확장하여 입구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 할 것이고, 여수화력발전소 안전의 시작인 '830회의'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2009년 5월 30일 꿈의 무재해 25배수를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매진한다. 

< 최종덕 기자 >